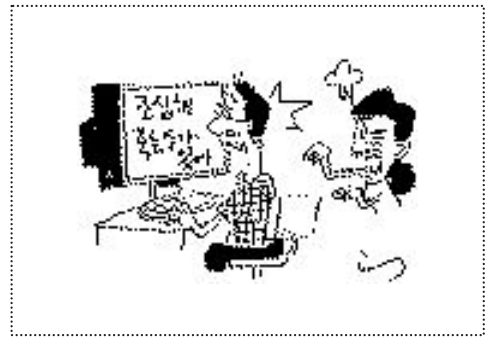




박소현의 섹.시.토크

H는 요즘 들어 남편이 가을을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첫 시작은 '한숨'이었다.

을바람을 맞아가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나 따라다니던 예쁜 후배는 누구에게 시집가서 잘 살고 있을까?' 따위의 옛 추억이나 떠올리며 말이다.



내년이면 마흔 줄에 들어서서 닷인지 이년 전부터 H의 남편은 유난히 가을을 타고, H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방향을 그저 묵인해오고 있었다.

까?' 그렇게 생각하자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렸다. 특히 간밤에는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 같았다.

인터넷 카페 남편의 수작 "외로운 독신남이 좋은 친구를 찾습니다. 꼭지 주십시오"

은 3, 40대가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호회 홈페이지였다. 남편의 아이디를 발견한 H는 주저할 것 없이 남편이 올린 글을 클릭했다.

내 남자의 가을

는군요. 행복한 감정이 언제였는지 아득한 기분도 들고요.

별 내용은 아니었다. 말 그대로 가을 타는 남자의 상념이 별 맥락 없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독백과 상념이 남발된 글의 끄트머리에서 H는 못 볼 것을 보고 말했다. 글의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이다.

"외로운 독신남?" H의 입에서 바로 욕이 튀어 나왔다.

나이 들어가는 남자의 방황? 좋다 이거다. 하지만 적어도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는 방향인 줄 알았더니 이런 수작이나 부리고 있었다.

검색절정 키워드

올림픽 스타들 전국체전 인기 폭발

베이징 올림픽 스타들의 열기가 전국체전에서도 이어졌다. 16일 폐막한 제 89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스포츠 스타들이 이번 주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마린보이' 박태환은 100m 자유형 한국신기록과 함께 가쁜히 5관왕에 성공하면서 검색어 순위에서 이름을 올렸다.

21년 만에 나온 육상 한국 신기록도 화제가 됐다. 한국 육상 세단위의 간판 김덕현(광주광역시청)은 멀리뛰기에서 기존 기록에서 무려 10cm를 더 뽐 8m13cm로 금메달을 목에 걸어 검색어 순위에서 등장했다.

유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한관승의 사나이' 이원희와 원정응원에 나선 예비신부 김미현의

다양한 모습도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됐다. '국민 여동생' 문근영도 인기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SBS 수목드라마에서 신윤복 역을 맡아 눈길을 끌었던 문근영이 지난 9일 촬영 중 좌측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지난 14, 15일 초·중·고생의 학업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등 1학년은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평가에서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로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이 나오면서 이를 두고 네티즌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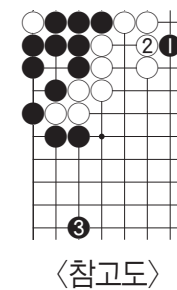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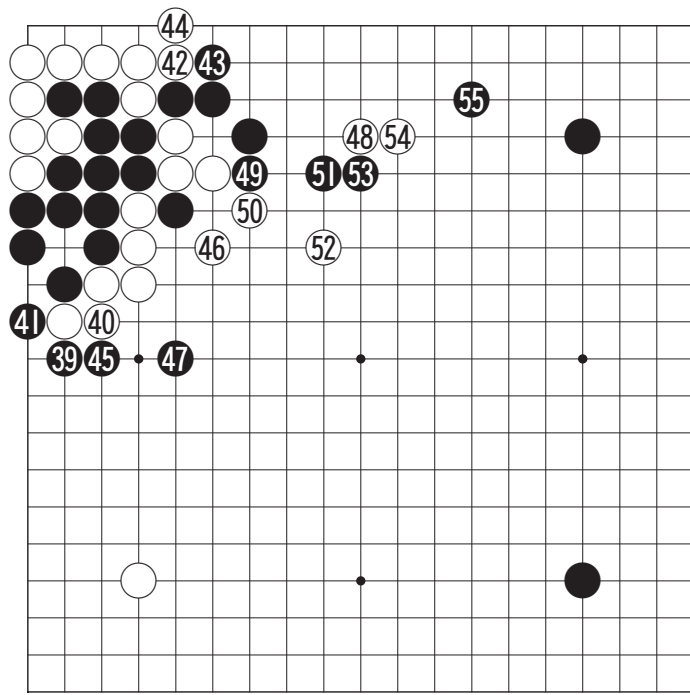
드라마 촬영 도중 코뼈 부상을 입어 네티즌의 안타까움을 산 '국민 여동생' 문근영.

제2호 광주바둑협회장배

완벽한 정석 진행

중고등부 결승전 3보(39-55)

白 권재구 4단 黑 김영환 4단 (문성중 3) (금구중 1)



흑 39로 불인 수가 이 정석의 완결판으로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석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백 44로 살아서 복잡하고도 어려운 대형정석이 완성되었다.

이 정석은 바둑판의 4분의 일을 차지할 정도로 수순이 복잡하여 변화가 주를 이루는 최근에는 거의 두어지지 않고 있는 잊혀져 가는 정석이다.

그런데도 두대 국자가 이 정석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공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흑 45는 절대점이었으나 흑 47이 어려운 자리였다. 김영환군은 기본상으로 백을 공격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들여다 보고 3으로 별립 결격 실속있게 두고 싶다.

백 48로 합공하여 중반전에 돌입했는데 흑 49가 잘못됐다. 이 수로는 그냥 51로 두어야 했다.

흑 55가 강수로 김영환군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1169>

How about a night on the town? 시내에 나가 나이트나 즐깁니까?

A : I'm bored. All I ever do is sit around and watch TV. B : How about a night on the town? A : Tonight? B : Sure, it'll be fun

A : 아... 따분해. 그저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어야 하구나. B : 시내에 나가 나이트나 즐깁니까? A : 오늘 밤? B : 그래, 재미있을 거야.

* bored : 따분한 * All I ever do ~ = 그저 내가 하는 것은~이구나. * 공짜 영화표, 어때? = How about a free ticket to the movies?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69>

お口に合う。 입에 맞다.

A : 韓国料理(かんこくりょうり)はどうですか。お口(くち)に合(あ)いますか。 B : ええ、とても好(す)きます。このキムチ、本場(ほんば)だけあって、とても美味(おい)しいですね。

A : 한국 요리는 어떤가요? 입에 맞습니까? B : 예, 매우 좋아합니다. 이 김치, 본고장 것 답게 아주 맛있군요.

* 韓国料理(かんこくりょうり) : 한국요리 * 키무치 : 김치 * 본場(ほんば) : 본 장소, 본고장, 본바닥 * 美味(おい)しい : 맛있었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246>

图书馆在哪儿? 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A: 图书馆在哪儿? túshūguǎn zài nǎr 도서관 어디에 B: 那是图书馆。 nàshì túshūguǎn 도서관 C: 办公室在哪儿? bàngōngshì zài nǎr 사무실 어디에 D: 在图书馆楼上。 zài túshūguǎn lóushàng 도서관 위층에 있습니다.

图书馆 [túshūguǎn] 도서관 办公室 [bàngōngshì] 사무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886>

自强不息(자강불식) 스스로 자, 힘쓸 강, 아닐 불, 실 식

자강불식(自强不息)은 스스로 힘써 노력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밤낮으로 수양(修養)하여 중단함이 없음을 비유한다.

이 말은 본래 '주역(周易)'의 건괘(乾卦)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말로,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군자는 그것으로서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天行健, 君子以自强不息)."라고 하였다.

공자는 시냇가에 있으면서 '가는 것(逝者)이 이것(물)과 같구나. 밤낮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論語, 子罕) 이는 천지의 조화(造化)란 한 순간도 그치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도(道)의 본 모습이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

리빙 센스

투명 매니큐어 활용하기

◇가전제품의 녹을 방지할 때

냉장고나 세탁기등의 가전제품에 흡이 생기면 녹이 슬기 쉽다. 제품 끝면의 코팅이 벗겨진 자리에 투명 매니큐어를 발라두면 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옷자리에 떨어진 땀뺨볼 흔적

옷자리에 땀뺨볼이 떨어져 검게 닳은 경우 재빨리 탄 곳을 긁어 낸 다음 그 부분에 투명한 매니큐어를 바른다. 탄 자국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자잘한 부스럼기도 생기지 않는다.

이때 3%로 희석한 과산화수소를 헝겊에 묻혀 닦아주면 검게 탄 흔적이 없어진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0월 17일(음 9월 19일 庚寅)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te 10월 17일.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photo of a coupl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